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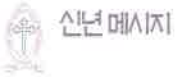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벤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목회자의 신년기도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역사의 목표로 중심이며 의미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한번 기회를 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고 회평케 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감당치 못한 허물을 용서하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호가 광풍만난 조각배처럼 혼란을 거듭하고, 온 세상은 전쟁과 지진과 역눌림과 굶주림의 아우성 소리로 요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정도를 보여주는 햇살을 올려 저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 구실을 못 다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주님의 사랑과 사명을 다시 받은 서울교회가 올해는 하나님과 조국과 인류 앞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더 크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혼란스런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하기에 바빴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무시했으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남에게 강요했던 교만한 자의 삶을 자복합니다. 새해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순종할 마음과 회생하는 계물로 이 몸을 바치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갈등과 분열로 찢어지고 상처난 이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권능과 큰 믿음을 주옵소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백성을 돌아보아 주시옵고, 안보불안과 공산주의 사탄의 꾀계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복음화 된 통일 조국을 이룩하게 하옵소서.

올해에는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현당하여 민족과 세계 구원의 센터가 되는 원년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의 등대가 되고, 민족의 구원선이며, 방향을 잃은 세상의 나침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태어난 서울교회는 2010년이 되기 전 선교사 100명 이상을 파송하고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빈약한 자를 돕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성숙한 교회로 그리고 구원받을 선민들이 구름떼처럼 날마다 시마다 물려드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서울교회 가족된 자마다 그 영혼이 잘 됨같이 육신도 강건케 하옵시고, 불의의 사고 만나지 않게 하옵시며,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케 하옵시고, 가정과 일터마다 특히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지게 하시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새해의 목회 이렇게 달라진다

우리교회는 새해를 맞이하여 목회지침이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 교회 표어는 '교회, 세상의 소망'으로 행동지침은 ① 이웃의 등대 ②민족의 구원선 ③세상의 나침반이다.
- 모든 행사계획은 지난해의 것이 거의 계속된다. 단 5월에 체육대회가 있다.
- 경배찬송은 6장에서 3장으로, 3부 예배 입례송은 44장으로 그리고 주기도 사도신경은 새번역판으로, 십계명 교독문은 개역개정판 성경본문으로 한다.
- 교사와 찬양대원 추가임면은 3월말, 6월말, 9월말로 한다.
- 초등부에서 3~5개반을 무학년제로 시험한 후 확대 시행한다.
- 성경암송대회 본문은 빌립보서로 한다.
- 결혼예비학교를 학기별로 운영한다.
- 찬양대는 질적 수준을 높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 주중연습을 필수로 하도록 한다.

- 다락방 모임 보고는 교회 홈페이지 교구난을 통해 보고한다. 가능하지 않은 다락방은 전화로 한다. 단 금요일 밤 12시까지 한다.
- 교구일꾼 양성반, 교사양성반, 찬양대양성반을 수료치 않은 해당 부서 봉사자는 반드시 양성반을 수료한다.
- 신년 초에 70세 이상 노인 심방을 하고 구원체크를 한다.
- 1년 이상 교회출석이 어려워 투병 중에 있는 이들은 가급적 1-2월 중에 담임목사가 심방한다.
- 각 전도회 선교회는 지도목사의 지도하에 1년 사업계획서를 작성 보고한다.
- 직능별 선교회(실업인, 학원, 의료, 미용)를 활성화한다. 선교사 100명 파송계획과 선교사 후보생을 발표한다.
- 구제사역에 힘쓰되 구제 대상을 발굴한다.
- 각부 사용방은 주보를 보고 실시한다.

## 신년 첫주일 예배 및 순결서약식

### 주일예배 시간에 성찬예식, 찬양예배 시간에 순결서약식 가져

오늘 우리가 2005년을 맞아 처음 갖는 주일로 I, II, III부 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갖는다.

또한 2005 순결서약식을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순결서약식은 세상이 나날이 타락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지금 젊은이들이 말씀대로 자신의 순결을 지키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교회와 성도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다.

오늘 순결서약식에 참석하는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오늘들의 서약을 기억하여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도록 순결서약 받기가 주어진다.

## 2005 청지기 수련회

### 내일(3일)부터 일주간

2005 청지기 수련회가 내일부터 일주간 계속된다. 청지기 수련회는 매년 신년 초에 그해의 각 부서에서 교회의 모든 살림을 이끌어가게 될 청지기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로 준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이다.

수련회 기간 중 새벽기도회는 30분 당겨진 오전 5시에 시작되며 강의는 요일마다 정해진 담당 교역자가 진행하며 장소는 새벽기도회를 마친 후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 오늘 공동의회 갖는다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우리교회는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2004년 교회 살림을 결산하고 2005년 예산을 심의하는 공동의회를 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갖는다.

본 교회 등록 세례교인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풍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2004년을 결산하고 더욱 크게 허락하시어 현당을 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심정으로 2005년 예산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 새가족환영회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강동화 강석수 강은경 강인식 강주희 강현주 고경원 고정일 고혜연 고혜정 김대경 김민희 김성은 김승일 김영진 김옥순 김운경 김민겸 김주연 김준일 김지연 김화정 류장열 문정준 박경배 박선민 박소방 박윤옥 박정금 박정선 박주희 박준성 박지현 박찬양 송지혜 신은숙 심명옥 심지혜 안상민 양귀식 양혜정 옥민재 옥유찬 옥홍재 원세경 유상복 윤의숙 이정실 이규민 이 솔이영지 이원희 이 은이은희 이준호 이지수 이지연 이지은 이지혜 이 진이희민 이희철 임수정 임재현 정서영 정용재 정진연 정한석 정현모 조성자 조순엽 조희선 한은미 홍명숙 황규영 황규진 이상76명

## 2004년 소요리문답 수료자

강원배 강용길 강진환 강창수 김안실 김준자 김해수 김혜령 노경진 서한석 송미령 양미숙 양정실 여유현 옥문수 윤석호 윤용근 은기장 이강진 이경림 이경희 이덕희 이정수 이창희 임명자 정명숙 정상달 정원조 조복자 최경분 한달전 한선현

구분	1. 3(월)	1. 4(화)	1. 5(수)	1. 6(목)	1. 7(금)	1. 8(토)	1. 9(주일)
5:00~5:30	특별새벽기도회 (강사: 교육담당 목사)						청지기 헌신예배
	윤영국 목사	김운호 목사	이규정 목사	오정식 목사	이성득 목사	한상은 목사	
5:40~6:20	윤영국 목사	김운호 목사	이규정 목사	오정식 목사	이성득 목사	오정수 장로	(찬양예배)
	예배위원의 역할과 자세	교회학교 교육과 운영	전도와 선교를 통한 교회부흥	교구일꾼의 역할	섬김을 통한 교회봉사	부서의 재정 운영과 실제	
대상	예배위원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	선교위원 전도위원	교구일꾼	목회자신학세미나, 멀티미디어, 순례자, 차량, 식당, 직원	각부 부장, 대장, 회장, 학감 및 회계	청지기 전원



2005년 한해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당회원 일동



천국시민양성 - 안식년을 맞이하며

# 겸손과 순종의 삶으로...

## 왕경래 장로 (11교구)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일꾼으로 불러 주신 은혜에 감사 드리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장로로서 교회에 불충 하였던 것, 마음은 원이로되 영육이 연약하여 실천하지 못한 것, 날날이 기억하며 저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안식년을 당회가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 알고 2005년도를 자아발전과 영적 성숙의 한 해로 삼고 안식과 더불어 영성 훈련, 타 교회 탐방, 환자심방 전도를 하면서 보내고자 합니다. 영성훈련으로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찾고 심신을 재충전하며 자기개발을 꾀하고 교회 안과 밖을 둘러봄으로써 다른 교회의 잘된 것을 관찰하고 병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심방함으로써 위로해드리고 병원전도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힘쓰겠습니다. 교우님들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이영수 장로 (1교구)

내 영혼은 당신 품에서 휴식을 취할 때까지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안식년을 맞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불로 연단하듯 더욱 정제된 성도로 새롭게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 문입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고..." 목사님께서 권면하신 짧은 말씀은 안식년을 맞는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 것을 함축하였습니다. 일 년 간 교회 조직에 매이지 않고 장로가 아닌 초신자로 첫사랑을 나누던 그 시절의 겸손을 찾아 그 때 더러움으로 가득 찬 나를 받으셨던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을 무한한 행복으로 여기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놀라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시고 또 이루려 하시는 크나큰 역사를 우리는 감격하거나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보았음에도...

## 노승성 장로(6교구)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

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요 8:29)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이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먼저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종인 장로로 부름 받고 안식년을 맞아 이러한 삶이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더욱 풍성한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낮아진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마음 닦기를 원합니다.

둘째, 겸손한 삶이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셋째로 순종의 삶이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박두호 장로(7교구)

1998년 11월 교회설립 7주년을 맞으며 5대 장로로 온 교회의 사랑을 받으며 장로 장립을 받은 지가 엿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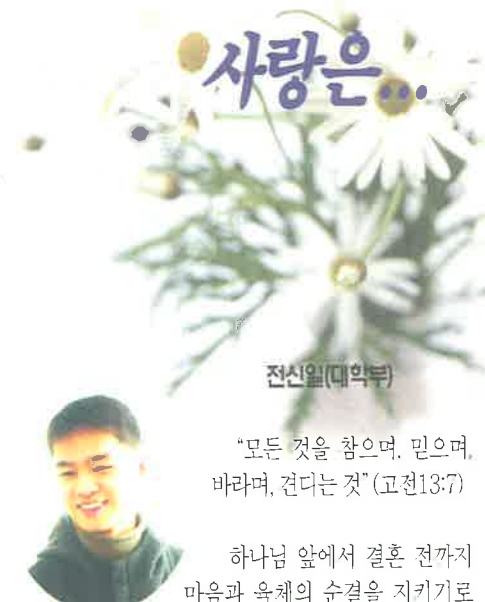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성도들을 섬기며 목사님의 목회에 협력하는 중의 자세로 겸손하게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던 일들이 지난 6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교회 앞에 많은 짐을 지은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6년 과정을 마치고 중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마음으로 안식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잘 못했던 것 말씀으로 고침 받고, 부족했던 것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교회 앞에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져 온 성도들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장로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시민양성 - 순결서약식

# 진정한

# 사랑은...



전신일(대학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고전13:7)

하나님 앞에서 결혼 전까지 마음과 육체의 순결을 지키기로 서약한지 벌써 만으로 9년이 되어 갑니

다. 서약 당시의 저는 아직 사춘기조차 오기 전이었던 중학생이었던 터라, 성적 순결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세히 몰랐었지만, 그저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만 가슴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나름대로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지키기 보다는 누가 더 빨리 소위 '딱지'를 떼느냐를 놓고 경쟁하는 친구들도 보게 되면서, 순결서약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혼전 순결의 의미가 과거의 '성경험이 없다'에서 요즘은 '임신경험이 없다'로 바뀌고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이미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순결을 지킨다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에서는 음녀의 길로 치우치는 것이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이유와 반론이 있을수 있으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적 순결 뿐 아니라 전반적인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결혼 전뿐 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려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너무도 타락한 세대 가운데 특별히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과 성도들을 증인으로 삼고 결혼 전까지 순결을 서약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 육체적 순결을 이전에 이미 상실했다 라도, 기도하여 용서를 구한후 서약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매년 새해 첫 주마다 우리교회는 순결서약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더욱더 많이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의 하나님

# 내가 먼저 변하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김광신 장로 (당회서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결국 의인은 없는 법이고, 그러므로 세상도 망하고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되게 하셨으니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고 견딜 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의인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먼저 변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수고는 접어놓고 남보고 변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눈의 들보는 안보이고 남의 눈에 티는 어찌 그리 잘 보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사건건 비판하고 싶어서 혈안이고 현미경으로 찾습니다. 건수가 발견되면 소문을 퍼트리고 열변을 토합니다. 가룟 유다도 향유를 낭비한다고 비난했는데 본심은 도둑이었습니다.

새해부터는 내가 변화되는 수고를 해야겠습니다.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고통과 비난도 내 몫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고 무엇보다 언행일치가 되는 삶을 살도록 채찍질해야겠고 당회원 10명이 먼저 변하고, 집사 10명, 권사 10명이 변화되면 교회는 노아 방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랑하기 위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먼저 변하는 축복을 달라고 새해 첫날 아침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천국시민양성 - 권사는퇴식을 마치며..

# 복이 있나니



▶ 왼쪽부터 최금례 고후덕 한금희의 권사

지난 12월 26일 찬양 예배 시간에 권사 은퇴식이 거행되었다.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 권사님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 헌신적인 삶의 결산의 시간이요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넉넉한 자리이기도 하였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희생과 사랑의 본을 보이시며 물려주시는 세 권사님들(최금례, 고후덕, 한금희)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 큰 상패를 받는 모습이 아름다웠으며 성

도들에게는 믿음의 도전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순을 넘긴 지 엿그제 같은데 벌써 은퇴라니 너무 허망하며 당황 하셨노라고 젊었을 때 좀더 충성하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회한의 눈시울을 적시며 끝내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없다고 자신을 부인하셨다.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 교회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는 권사로, 또 은빛찬양대의 대원으로 최선을 다해 찬양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다.

살롬 권사회에 올라가셔도 언니권사님들을 잘 보필하며 순종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묵숨 다해 서울교회를 사랑할 것이며 후손들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라고.

지금도 그 찬송(370장)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캄캄한 밤이 오기 전에 맡겨진 일 힘써 일하라고 꼭 당부하십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겸손한 미소를 지시는 선배님의 교훈이었다.

평소에 늘 암송하던 말씀 시편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로 일생을 걸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쫓대를 향해 달려왔노라고 남은 시간은 후배들을 위해 소중히 바치겠다고 신앙을 고백하셨다.

겉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권사님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동기(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 2005년 농어촌100교회후원현황

번호	교회명	목회자(목/전)	후원자
101	남면교회	박형환(목)	탁경준,전정숙
102	송일교회	권태호(목)	한나여전도회
103	한마음교회B	서상인(목)	한현숙,곽종철
104	화계교회	백현중(목)	홍창배,권희순
105	가은중앙교회	황중호(목)	황정옥,주경자
106	송마리교회	추진규(목)	고은화
107	만년교회	김형식(전)	김복승,김현숙
108	방리교회	최규남(목)	마리아여전도회
109	대구동서교회	이종복(목)	마리아여전도회
110	명학반석교회	임희수(전)	마리아여전도회
111	천복교회	이환용(전)	박경선,김남순
112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정철환	비비아전도회
113	신촌교회	송하길(목)	비비아전도회
114	벌방교회	정병옥(목)	빌립남선교회
115	논산장로교회	송희순(전)	손병석,김현정
116	한성교회	윤중수(목)	엘리아남선교회
117	신경리교회	박연오(목)	이판규,이순영
118	덕호교회	문선호(전)	이승민
119	둔병교회	류한복(목)	이승우,서경숙
120	마동교회	최태환(전)	이양철,김미향,이성화
121	만리교회	김영철(목)	최규초,노순례
122	모산교회		홍은표

-다음주일에 계속-

## -지진피해 구호-

우리 교회는 신년감사 헌금을 남아시아 지역 지진피해복구를 위한 구제금으로 보냅니다.

### 동정

- 개업: 한중호 집사, 김미혜 집사 '베리스타 아이스크림' 개업 명일동 T. 428-7333
- 승진: 김영빈 집사(1교구) 대우건설 상무이사
- 득녀: 현성출 성도 신미선 성도가정(14교구)  
· 탁영한 성도, 박영주 성도(3교구: 탁경준집사, 전정숙권사의 손녀)  
· 송지은성도(1교구)
- 주간식당봉사: 모세 남선교회(1월2일) 도르가 여전도회(1월9일)

### 이중운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일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 잠남 케이블 TV CH4-주일 저녁 9시5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세상의 소망 되도록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4. 국론 통일과 북을화원 통일 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